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遵守합니다.

發行人兼 編輯人 裵 東 守
印刷人 金 政 坤
編輯局長 裵 永 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7-8133 사무실

# 韓藥材(生藥) 유통 및 展望

## 新規會員을 위하여

## 우량生産品 出荷에 힘써
## 번영하는 市場과 共存노력

〈續〉=지난 5년간 本會系統으로만 集計된 國內主要生産品種을 살펴보면栽培生이 1만~1만2천톤, 自然生이 約3천~4천톤등으로서 推計하면 年平均1만5천여톤이 生産流通되고 있다고 推定할수 있다。

다음 5年間 生産통계를 분석해보면 기간중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品種은 만삼、목단、반하、방풍、사삼、지황、시호、오미자、의이인、패모、황금、백하수오등 재배생을 들수 있으며 낭탕근、복령、현지초、오미자、오갈피、용담초등 자연생 주요생약들이날로 감소되어가는 현실이다。

최근들어 오미자、의이인등은 품귀현상으로 값이폭등하는 상태이지만 구득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자연생인 복령같은 품종은 채취량의 현저한 감소로 거의 수입품에 의존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생산농민들은 거의가 영세하기 때문에 값이 좋으면 集中하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 生産을 기피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과거 知母、택사、목단과 같은 시세폭락이 심하였던品種들을 살펴보면 요즈음은 제값을 받을만 한데도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다。이와같이 과잉으로 인한 폭락현상과 품귀현상으로 인한 폭등현상을 잘 관찰판단할수만 있다면 누구나일확千金을 노릴수 있으나일반 生産者들은 資金회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에 맞추어 生産出荷하지못함을 오직 한탄할 따름이다。따라서 生産初心者나기生産경험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관계 전문要路에서見聞을 넓히고 栽培現地를답사한후 선별栽培에 주안점을 두도록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돕기위해서 本會산하 各級 分事務所에서는長期的 계획생산과 地域別選別 재배에 대하여 연구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로 지도에 最善을 다해야 할것이다。더욱 UR협상이니수입전면개방 추세에 즈음한 알력시대를 맞아 우왕좌왕하는 生産農民들을 安定된 자세로 유도하고 결쟁력있는 우량품을 生産하는데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生藥流通 實態…

10年前이나 지금이나 生産者로부터 消費者에 이르는 유통실태는 별로 변한것이 없다。대저 생산농가는 지역종개인에 의해서현지 수집상으로→농촌대도시 중개상으로→생약도매상으로→거간을 거쳐→需要群으로→消費者로 전해진다고 볼때 7단계 과정이라 할수 있으나 (직접적 거래도 있지만) 대개는 인기품종의경우 그 마진은 근당 4백원 정도、비인기품종일 경우는 2백원 정도라고 하니 出荷과정에서 볼때 큰 마진폭이라고 생각되지는않으나 물량의 多少에 따라 평가할때 일반 전자제품(평균 밥통、밥솥등 개당5백원정도)에 비하여 相當한 마진이라고 볼수있다。生藥材는 한상 非生必品이라는 존재로 뒤떨어지고있지만 달국의 과감한 투자지원으로 최소한 4大都市정도에는 (서울、대구、부산제천등) 농협이나 수협등에

〈3면으로 계속〉

## ※주요품종의 5년간 생산현황

○ 재배생약 〈단위:TON〉

| 품종 \ 년도 | 85 | 86 | 87 | 88 | 89 | 비고 |
|---|---|---|---|---|---|---|
| 길경 | 761 | 354 | 558 | 875 | 550 | |
| 활자 | 56 | 114 | 114 | 57 | 136 | |
| 기충 | 141 | 477 | 231 | 286 | 278 | |
| 두귀 | 11 | 24 | 44 | 72 | 70 | |
| 당삼 | 420 | 524 | 649 | 660 | 1,500 | |
| 만단 | 30 | 43 | 34 | 26 | 10 | |
| 목동 | 259 | 89 | 144 | 137 | 20 | |
| 맥문 | 163 | 160 | 153 | 157 | 119 | |
| 반하 | 47 | 65 | 54 | 54 | 24 | |
| 방풍 | 224 | 334 | 75 | 75 | 55 | |
| 백지 | 25 | 150 | 65 | 86 | 51 | |
| 사삼 | 271 | 133 | 510 | 586 | 100 | |
| 시호 | 186 | 223 | 383 | 400 | 100 | |
| 산약 | 150 | 93 | 220 | 220 | 518 | |
| 산유 | 242 | 351 | 162 | 222 | 200 | |
| 오미 | 192 | 262 | 311 | 686 | 80 | |
| 의인 | 652 | 857 | 698 | 700 | 450 | |
| 작약 | 792 | 495 | 650 | 854 | 700 | |
| 지황 | 723 | 482 | 527 | 479 | 450 | |
| 천궁 | 610 | 600 | 766 | 760 | 750 | |
| 천초 | 562 | 245 | 240 | 245 | 250 | |
| 패모 | 44 | 31 | 88 | 70 | 36 | |
| 택사 | 80 | 75 | 149 | 258 | 200 | |
| 황금 | 239 | 200 | 77 | 217 | 117 | |
| 황기 | 397 | 274 | 595 | 568 | 800 | |
| 백하수오 | 170 | 171 | 27 | 142 | 83 | |

○ 자연생약

| 품종 \ 년도 | 86 | 87 | 88 | 89 | 비고 |
|---|---|---|---|---|---|
| 갈근 | 122 | 116 | 110 | 200 | |
| 고삼초 | 51 | 51 | 48 | 48 | |
| 구절초 | 15 | 15 | 14 | 14 | |
| 과루인 | 14 | 14 | 12 | 12 | |
| 과루근 | 18 | 18 | 16 | 16 | |
| 납설 | 19 | 19 | 17 | 17 | |
| 낭탕근 | 32 | 32 | 30 | 10 | |
| 목적통 | 7 | 7 | 7 | 7 | |
| 목출령 | 23 | 23 | 22 | 22 | |
| 복분자 | 1,702 | 891 | 473 | 500 | |
| 복사삼 | 6 | 6 | 80 | 100 | |
| 산사초 | 19 | 19 | 6 | 6 | |
| 산생약 | 57 | 51 | 17 | 17 | |
| 산세신 | 9 | 9 | 48 | 48 | |
| 현지초 | 190 | 162 | 9 | 9 | |
| 속단 | 82 | 62 | 153 | 153 | |
| 승마 | 153 | 124 | 58 | 70 | |
| 시호 | 16 | 16 | 117 | 10 | |
| 오미자 | 21 | 21 | 14 | 14 | |
| 오배자 | 8 | 8 | 20 | 20 | |
| 오수유 | 391 | 334 | 8 | 8 | |
| 용담초 | 30 | 30 | 317 | 350 | |
| 음양곽 | 15 | 15 | 28 | 20 | |
| 지실 | 51 | 51 | 14 | 14 | |
| 지각 | 39 | 39 | 48 | 20 | |
| 창출 | 39 | 39 | 37 | 50 | |
| 천마 | 6 | 6 | 38 | 20 | |
| 초오 | 29 | 29 | 5 | 5 | |
| 토복령 | 521 | 422 | 28 | 17 | |
| 패모 | 18 | 18 | 400 | 450 | |
| 황백 | 14 | 12 | 17 | 17 | |
| 황수오 | 5 | 5 | 13 | 20 | |
| 후박 | 6 | 6 | 5 | 5 | |
| | 44 | 41 | 6 | 6 | |
| | 42 | 39 | 39 | 39 | |
| | 14 | 14 | 37 | 37 | |
| | 4 | 4 | 12 | 30 | |
| | | | 4 | 10 | |

連載 韓方순례 〉17〈

〈續〉

그렇다면 이 눈길이 감정과 의지의 표현만으로 그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장에서 이미 살폈다。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자기의 스테미너(건강도)의 상태가 나타나고 오후에는 피로한 눈망울을 숨길 수 없다。

눈이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여기서 이를 한방적으로 풀이해 본다。

첫째、눈은 우리 인간의 장부의 작용및 그활력과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순환경로인 경락의 흐름인 기혈、즉 인체의에너지와 밀접히 연관되어있고 세째、장부나 경락자체가 감정의 움직임인 정념과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네째、또한 이 장부나순환경로가 음식물、공기、대인관계、환경의 영향과도밀접히 연결되었기 때문인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유기적인 영향을 받은 장부나경락의 상태가 눈을 통해 신속히 나타남은 물론 또한 장부나 경락자체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①풍륜(風輪—黑眼)은간장 및 담낭과

②혈륜(血輪—兩肥)은심장 및 소장과

③육륜(肉輪—兩瞼)은비장 및 위장과

④기륜(氣輪—白眼)은폐장 및 대장과

⑤수륜(水輪—瞳孔)은신장 및 방관과 연관성을갖고 있다。

2、오륜(五輪)과 팔곽(八廓)에의 한 진단법

오륜이란 풍륜(風輪)、혈륜(血輪)、육륜(肉輪)、기륜(氣輪)、수륜(水輪)의 다섯가지이름으로 풀륜은 부분、눈동자의 걸은 눈동자의 양 눈초리、혈륜은 눈의 둘레、기육륜은 눈꺼풀의 흰자위、수륜은 눈망울의 검은 눈동자의 동공(瞳孔)을 가리키며 각기 내장기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상한 것은 이미 눈과 얼굴에 신속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학에서도 이 눈은 인상과 관상을 판별하는 첫 요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눈의 진단에서 색에 관한 것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눈의 오륜(五輪)과 팔곽(八廓)및 혈륜과 기륜의 다섯가지 이름으로 풀륜은 부분、눈동자의 걸은 눈동자의 양 눈초리、혈륜은 눈의 둘레、기육륜은 눈꺼풀의 흰자위、수륜은 눈망울의 검은 눈동자의 동공(瞳孔)을 가리키며 각기 내장기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상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祝) 發展

◎ 全羅北道支部

지부장 김 종 근 (무주군소장겸직)
장수군 사무소장 정 춘 수
김제군 〃 강 삼 석
임실군 〃 임 종 근
전주시 〃 정 영 모 (도록생회장)
부안군 〃 신 용 섭 (군공판상장겸직)
이리시 〃 이 상 현
군산시 〃 왕 길 탁 (시공판장장겸직)
남원시 〃 안 성 홍
진안군 〃 빈 성 순
남원군 〃 오 기 주
순창군 〃 정 삼 모
완주군 〃 강 이 상
익산군 〃 조 명 식
정주시 〃 박 종 희
정읍군 〃 배 성 필
정읍군 공판장장 손 창 윤
완주군 〃 전 성 균
전주시 〃 김 상 수

1990년 8월 20일